

P24. 프라다스포츠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Expressed on the Prada Sports Fashion

김선화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Kim, Sun-Hwa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현대는 스포츠의 시대이며, 문화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스포츠는 최근에 와서 패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스포츠 패션이 미국속에서 형성되기는 했으나 90년대 들어 미국 뿐 아니라 이태리의 밀라노 컬렉션이나 파리 컬렉션 등에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때 현대적 감각의 이탈리아 스포츠 패션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자유경쟁의 차별화된 컨셉으로 인터내셔널 브랜드들의 마켓쉐어를 잠식당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서 국내 브랜드들의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스포츠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90년대 스포츠 패션을 잘 표현하고 세계 패션에 스포츠 패션 붐을 일켰던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프라다의 스포츠 패션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마켓 시대에 이미 하나의 월드 패션으로 자리매김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프라다의 스포츠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패션잡지 및 패션 저널, 국내 패션연구소의 자료 등에 의한 문헌고찰을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포스트 모던니즘적 요소로서 이질적인 디자인 요소의 혼용,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즉 클래식하고 복고적인 실루엣에 파격적인 미래감과 친숙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중세의 타이포 느낌을 주는 프라다 로고체에 미래 감각을 불어 넣은 심플한 붉은 줄의 레드 라벨에서 과거와 미래의 공존이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미우미우의 경우 스포츠웨어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한 로맨틱한 분위기의 큐트한 스타일이었다.
2. 90년대 이후 패션계에 나타났던 미니멀리즘의 절정으로 고도의 절제미를 보여 주었다. 심플한 실루엣과 무채색이나 단색 계열의 색상 등 최소한의 조형요소를 이용하여 패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표현하였다.